

전남식품물 '남도장터US' 美 상륙

2개월 시범운영 후 정식 개장...지역 기업제품 수출 확대 기대

전남도가 미국 현지에서 전남산 고품질 농수산물 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남도장터US' (inmall.us)를 구축, 앞으로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정식 개장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세계적인 열풍에 힘입어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 전남산 농수산물 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미국 판매용 제품 선별, 각종 수출인증 등을 거쳐 수출한 66개 기업 147개 제품을 미국 전역에서 판매한다. 남도장터US는 앞서 전남도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남식품의 경쟁력을 확인한

이후 올해 2월부터 구축에 들어갔다. 운영은 현지 온라인 전문기업이 맡았다.

입점 제품은 현지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 도내 농수산물 중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인증받은 제품 위주로 선별했다. 시범운영 기간 신규 회원 모집, 주문·배송 테스트,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오는 9월 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남도장터US는 아마존의 냉동·냉장 식품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식품기업이 현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한남체인 플라튼점에 첫 번째로 전남 농수산물

전용 상설판매장을 개설한 이후, 전 세계 8개국 현지 마켓 21개소에 판매장을 구축했다. 현지 소비자는 물론 마켓 운영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1549만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또 지난 2020년 7월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구축한 후 영국과 유럽연합(EU) 4개국, 캐나다 등 전 세계 7개국 아마존에 전남 식품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그동안 43개 기업이 489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도장터US를 255만 재미동포를 비롯해 미국 현지인들이 바라는 고품질 한국음식에 대한 육구 충족 통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모집

기술개발 자금 최대 20억 지원...정책자금·기술보증·판로개척 등

광주시는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지원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기업은 최대 6년간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비롯한 정책자금 대출, 기술보증료 감면과 함께 판로개척, 인재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소재한 주력산업 업종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2월 4개사를 선정한 1차 모집 요건과 다른 점은 매출액 400억원 미만이라는 매출상한액을 폐지하고, 협업 범위는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주력산업 업종은 광양항, 디지털 생체의료, 스마트(공정)금형, 지능형 가전 등이다.

광주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발표평가 후 선정 후보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검증용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무등산 생태호텔' 조성 백지화

강기정 시장, 기아챔피언스필드~터미널~도시철도 트램은 진행

광주시가 논란을 빚어온 옛 신양파크호텔의 가장 '무등산 생태호텔' 전환 계획(분보 2022년 4월 13일자 1면)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이난색을 표명한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도시철도 1호선(농성역)을 잇는 트램 설치 사업은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미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건축물 대입비로 369억원이 투입됐는데,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며 "여기에 생태호텔까지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개인 살림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며 생태호텔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최근 (민선 7기때)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성된 민·관·정 협의회 관계자를 만났는데, 생태호텔 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한달을 시끄럽게 뒤흔 든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입장에 내렸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SOC사업과 지역 상생사업의 밑그림, 그리고 방향성 등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인데도, 갑자기 지원 규모와 예비타당성, 민간사

업 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까지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국민의힘측에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으로 제안했던 트램 설치에 대해서 "이번 트램노선은 광주 도심 내 핵심시설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최대 1000억원 정도"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하는 계획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답보 상태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선 "현재 관련법상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광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수는 없지 않느냐. 현재 (광주 시도) 은행권과 금호타이어측을 연결하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효과

농가 자부담 10% 경감 등 추진...전년보다 2565호 가입 늘어

전남도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농가 자부담 경감 등 체계적 지원대책이 보험 가입 농가를 늘리는데 한몫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농가실적은 총 6만5443농가, 11만6334ha 면적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65호(4.1%), 1435ha(1.2%)가 증가한 규모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 벼 재배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하도록, 지난 4월 자체적으로 가입률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20%였던 농가 자부담율을 올해부터 10%로 낮춰 농가 부담을 덜어줬다. 가입 인식 확산을 위해 농가별 누리소통망(SNS) 등 밀착 홍보도 적극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시·군별 가입면적은 해남 1만5301ha, 영암 1만2240ha, 고흥 1만3211ha 순이다. 가입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은 영광 87.7%, 진도 84.3%, 장흥 84.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에선 벼를 비롯한 마늘, 양파 등 전체 농작물재해보험에 10만2000여 농가가 14만ha를 가입했다. 이에 따라 태풍, 호우 등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으로 6만5000건에 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간공원 미래는...

광주 민간공원(중앙공원 1지구) 주민설명회가 27일 오후 서구 금호지구 서구문화센터 강당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나주·영암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도, 새벽 1시까지 연중 무휴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목포, 순천, 여수, 광양에 이어 나주, 영암에서도 운영된다.

전남도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심형 54개소와 인구 10만명 이하 비도심형 9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나주 목사골 한약국, 영암 으뜸약국이 새로 지정받아 앞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해당 시, 전남도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목포 비타민약국, 순천 오가네약국에 이어 올해 1월 여수 백운약국, 광양 공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약지도를 받음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해소를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전남도 공공심야약국은 5월 현재까지 일반약 판매 1만5193건, 처방약 조제 241건, 전화상담 791건의 이용 실적을 거뒀다.

시간대별로 가장 많은 밤 10시 시간대 이용자가 1만1733명으로, 11시 시간대(4584명)보다 3배 많았다. 이용자 연령별로는 20~40대가 1만 896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구입 약품은 해열·진통제가 28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흡기계통 약품 1938명, 소화기계통 약품 1778명 순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드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G 정기예탁금

1년 **3.3%**

고이율 입출금 통장

개인용 위한 **2.2%**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최고

사업자를 위한 **2.5%**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월 이상 (10%)	40월 이상 (15%)	50월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특가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